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2022년도 5급 공채·외교관 선발 1차시험 경쟁률 38.4대1

- 출입국관리직 가장 치열...26일 전국 5개 지역서 일제히 실시 -

1.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이 오는 2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.

- 인사혁신처(처장 김우호)는 26일 '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'을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.

2. 앞서 지난달 25~27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, 총 362명 선발에 1만3,909명이 지원해 평균 38.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

【 22년도 5급 공채 등 원서접수 결과 】

구 분	선발예정인		출원인원(경쟁률)		증감(명)	
	'22년	'21년	'22년	'21년		
계	362	348	13,909(38.4)	15,066(43.3)	▼ 1,157	
5급 공채	행정	238	228	10,014(42.1)	10,989(48.2)	▼ 975
	기술	84	80	2,183(26.0)	2,407(30.1)	▼ 224
외교관후보자	40	40	1,712(42.8)	1,670(41.8)	▲ 42	

- 지난해 총 348명 선발에 1만5,066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,157명(7.7%) 감소했으며, 경쟁률*도 낮아졌다.

* 최근 경쟁률 : '18년 37.3대1 → '19년 36.4대1 → '20년 34.0대1 → '21년 43.3대1 → '22년 38.4대1

3.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5급 행정직군 42.1대1, 5급 기술직군 26.0대1, 외교관후보자 42.8대1로 각각 나타났다.

- 세부 모집단위별로는 출입국관리직이 1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189.0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.

【 주요 모집단위별 경쟁률 】

구분	행정		기술		외교관후보자	
	최 고	출입국 관리	189.0	해양수산	63.0	일반외교
최 저	일반행정 (재경)	24.4	시설(세종)	4.0		

4.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28.2세로 지난해(28.0세)보다 소폭 상승했다.

- 연령별로는 20~24세 3,681명(26.5%), 25~29세 6,137명(44.1%), 30~39세 3,258명(23.4%), 40~49세 762명(5.5%), 50세 이상은 71명(0.5%)이었다.

- 여성 접수자는 47.3%로 지난해(46.0%)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.

5. 1차 시험 합격자는 4월 6일 ‘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’를 통해 발표되며, 2차 시험은 6~7월 실시될 예정이다.

- 인사처는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추이를 주시하며 보다 안전한 시험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